

“하하하하…….몇 년이 흐르게 되면 알 것이네……. 조금만 일 마무리하고 자겠으니 조금 불편해도 참아 주시게나~~” 이런 시간들이 쉼이시에 물 파랑새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이시 인민병원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후 국장은 자연스럽게 저와 토론과 상담이 길어졌고 일단은 직장에 휴직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아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후 국장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장” 작성 후 국장님은 저의 제안으로 가족들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낭송되어진 유언장 앞에서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해주고,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후 국장은 그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도 이런 이별 아닌 이별을 했고, 이 소문이 작은 쉼이시에 퍼지면서 후 국장에게 응원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후 국장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변화 되어졌습니다. 지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감옥에 넣었던 죄인들 집에 방문하여 가족 보살핌으로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서 산서성 TV 방송까지 출연하는 일명 동네 “스타”까지 연결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치료가 시작되어 10일 되어가면서 후 국장의 몸은 안 좋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극한상황으로 가는 것을 애타게 바라보던 가족들은 저에게 QQ 통신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후 국장님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간에 복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응급실에 들어가 알부민 처방과 여러 처방전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들을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를 많이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초에 초산균들이 직접